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더치랜드 플라스틱(DUTCHLAND PLASTICS) 프로젝트의 센트럴  
뉴욕에서의 성장과 확장 발표**

*카나스토타 50,000 제곱 피트 면적의 시설에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확장하고 40 개 이상의  
새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와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 플라스틱 회전 주형 제작의 선두 계약 회사인 더치랜드 플라스틱(Dutchland Plastics)에서 현재의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메디슨 카운티의 카나스토타 빌라지에 50,000 제곱 피트의 새 시설로 운영을 확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23 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앞으로 2 년간 최소 42 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의 공사는 2019 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치랜드 플라스틱의 확장은 이 지역 경제를 개선하는 우리의 진보적인 경제적 전략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공적인 회사는 성장을 격려함으로써 회사 운영 확장을 선택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조하여 센트럴 뉴욕의 지속적인 부흥을 확보합니다.”

**더치랜드 CEO Randy Her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확장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회이며 Cuomo 주지사, 메디슨 카운티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행정 책임자 Kipp Hicks 에 감사드리며 지역 커뮤니티로부터 회사 직원 모집과 새 직원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배치할 카나스토타 시장 Carla DeShaw 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더치랜드 플라스틱이 센트럴 뉴욕에서의 확장을 격려하기 위하여 엠페이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하여 최대 475,000 달러의 성과에 기초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 ESD에서는 카나스토타 빌라지의 새 시설

공사를 지원하는 1,685,000 달러의 뉴욕 복구(Restore NY) 기금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본 장비와 유명한 이리 운하(Erie Canal)를 따라 자리 잡은 새 시설 설치에 260 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치랜드 플라스틱이 센트럴 뉴욕에서 성장을 계속하려는 결정은 이곳에서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회사들의 경제적 기회에 크나큰 공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의 사업 환경은 현저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전역의 경제적 기회에 힘을 실어줍니다.”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나스토타 빌리지에서의 더치랜드 플라스틱 회사 확장 소식을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주에 회사를 보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어 기쁘며 이런 협력관계가 오래가기를 바랍니다.”

**William Mag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치랜드 플라스틱이 메디슨 카운티에서의 확장을 결정한 것은 센트럴 뉴욕이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주와 이곳 지역사회에 계속하여 투자하는 그들의 결정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메디슨 카운티 감리위원회 회장 John Beck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치랜드 플라스틱이 메디슨 카운티에서 사업을 성장하려는 결정은 이곳 지역사회와 뉴욕주에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속적인 성공을 기대하며 카나스토타 빌리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나스토타 빌리지의 Carla DeShaw**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치랜드 플라스틱이 카나스토타 빌리지에 오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뉴욕 복구(RESTORE NY) 프로젝트는 버려진 산업 현장에 대해 개선하고 재부활시켜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지닌 경제적 자산을 가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주지사 사무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메디슨 카운티 IDA, 민간 개발업자 AECC 및 시장 사무실의 공동협력과 인내심을 통하여 카나스토타 빌리지에 45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거나 보수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져온 취업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스콘신 동부에 본사를 둔 더치랜드 플라스틱은 근 반세기 동안 고품질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회사는 주문형 플라스틱 제품 제조회사로서 레크리에이션, 상업, 아웃도어, 식음료, 가구 및 해양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Yeti 쿨러, NuCanoe 보트 및 KI 의자 등 첨단 제품들을 제조하며 동종 회사 중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계약형 회전 주형 제작사입니다.

더치랜드 플라스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4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